

임마누엘 [기쁨호] Vol. 9, No.2, Aug 30, 2015

# Emmanuel



# Contents

Vol.9, No.2, Aug 30, 2015

## I. 행전시리즈

02	말씀의 창
04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06	믿음의 선진들 - 한국의 사도 바울, 이기풍 목사 기획 특집
08	키즈클럽, 하나님의 응답
14	God's Provisions for Kids Club
18	청교도의 후예들 - 조지 횃필드
20	공예배 현장 - 화요 여성 예배로의 초대
24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 M.F. 스크랜턴

## II. 실만한 물가

26	전도 팀 - 가치란 무엇인가
28	임마누엘 레시피 - 연근 우영밥
30	커피 스토리 - 커피 여행, 두번째 이야기
32	물댄 동산 -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
34	성경속의 식물 - 백향목
36	시가 있는 풍경 - 주님 때때로
37	크리스천 명언 - 윌리엄 캐리
38	음식 상식 -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
40	초대의 글 -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 III. 임마누엘 사람들

42	나의 사랑하는 책 -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것이... 천사도 흠모하겠네
44	부활의 증인 첫번째 - Eunjae's Big Dream
46	부활의 증인 두번째 - 화요일 밤의 창세기
48	부활의 증인 세번째 - 나도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50	예녹과의 만남 - 남편의 일주년을 추모하며
52	한국 학교 글잔치 - '꼭', 운동대회, 강아지 똥
54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56	푸른 목장 - 홀인원
58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기 - 최권사의 성지 순례노트
60	행복한 사람들 팀, 부서 소개
62	믿음 안에 하나 - 동시 통역팀
64	너희는 먼저... - 오케스트라부
66	인터뷰 - 행복한 드러머, 방보경 자매님

## 말씀의 창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 4:7)

“You have put more joy in my heart than they have when their grain and wine abound”

(Psalm 4:7, ESV)



#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힘찬 세상 속에서 지친 삶을 살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두 가지 보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평안과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정적인 평안보다는 동적인 기쁨을 택하고 싶습니다.

삶이 무미건조합니까? 지치셨습니까?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기쁨을 얻으려면, 얻는 방법을 찾기에 앞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취해야 하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의 결과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는 기쁨을 유발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가져오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사회 속에서 내 욕망을 성취하는 행동들입니다. 기쁨은 추구하

는 욕망이 성취될 때 얻어집니다. 스포츠나 게임을 이길 때, 성공할 때, 합격할 때, 승부욕, 소유욕, 성공욕, 명예욕, 탐욕, 정욕 등 욕망이 성취될 때 기쁨이 물려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상대는 패배하고, 떨어지고, 기쁨을 빼앗겨야만 합니다.

기쁨을 생산해내는 두 번째 종류의 행동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위의 첫째 기쁨과 달라서, 상대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 것을 줌으로써 오는 기쁨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고, 또한 나도 기쁘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상대를 밀어내고 내가 차지하는 기쁨, 즉 첫째 유형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시기와 다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악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승자의 희열 속에, 패자의 쓰라린 고통과 눈물, 좌절과 분노가 곧 폭발할 것 같은 위험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 하셨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20:35)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길,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저녁에 강대학 형제님의 추모예배가 사랑방 모임에서 있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가족의 버림을 받고

집 없이 직장도 없이 홀로 외롭게 떠돌며 살다가 간 경화증으로 57세에 세상을 떠난 형제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참 불행한 삶을 살다가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예배에는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는 비록 가족과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소중한 가족,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가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서 잘못을 범해도, 또 용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방’이라는 가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서 패배하고 낙오되어 첫째 기쁨을 모두 잃었지만,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사람들 때문에, 그는 두 번째 기쁨, 더 소중한 기쁨을 풍성히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기쁨 중에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남을 이기고 불행에 빠뜨림으로써 누리는 경쟁적이고 파괴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 359장) 그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갑시다. 바로 살아 보어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고 또 줄 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 샘물처럼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고 계신지요?

글 손원배 목사

## 한국의 사도바울, 이기풍 목사 (1865-1942)



이기풍 목사

<http://blog.naver.com/dlfrudghd/120189814128>

### - 박해자에서 바울과 같은 선교사로

‘한국의 사도바울’이라 불리는 이기풍 목사는 1865년 평양 순영리에서 태어났다. 개인적으로 한학을 수학했고, 서예와 묵화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팔괄한 성격으로 싸움과 술을 좋아했으며 서양 선교사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영문의 아전으로 있으면서 싸움과 술주정으로 세월을 보내던 중, 1891년 선교사 마펫(S.A. Moffet, 마포삼열)이 노방 전도에 힘쓰고 있을 때 돌을 던져 그의 턱에 큰 상처를 입힌 예화로 유명하다. 1894년 7월, 청일 전쟁이 일어나 원산에 피난을 갔을 때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다.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한 사람이 나타났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라는 음성이 들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깬 그는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를 깨닫고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나,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을 것만 같아 괴로워했다. 이기풍은 예전에 자신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던 김석필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와 죄를 솔직하

게 고백하였으며 김석필의 인도로 예배당에 가게 되었고, 1896년 스왈른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30세에 기독교인이 된 후, 이기풍은 동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일과였고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렸다. 1901년까지 매서(성경책을 파는 사람)로서 함경도에서 성경을 배포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1902년부터 1907년까지는 스왈른 목사를 따라 황해도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업무를 돕는 조사(helper)로 활동했다. 1907년 6월 20일, 신학교를 1회로 졸업하였으며, 그해 9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에서 서경조, 길선주, 한석진, 방기창, 송인서, 양전백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다.

### - 제주도 선교의 아버지

노회는 9월 19일, 7인의 목사가 탄생한 기념으로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고, 이기풍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당시 제주도는 탐라국이라 불리며, 언어도 완전히 달랐고 뱀을 숭배하는 무속 신앙도 많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축교난(편집자 주: 1901년 제주도민들과 천주교도들 사이에 일어

난 충돌 사건) 이후 제주도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섬사람 특유의 외지인 배척 문화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난공불락과 같았다. 그는 끼니를 밥 먹듯이 굶고, 한라산 기슭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극심한 영양실조로 정신을 잃었는데 한 해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기풍 목사의 제주도 사역은 첫 열매인 해녀를 전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조랑말을 타고 제주도를 일주하면서 ‘생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할 때 입은 바지 저고리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며칠 동안 발농사를 도와준 후, 친해지면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씩 열리면서, 1908년부터 1916년까지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성안 교회를 비롯하여 13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고문과 핍박으로 죽어갔던 수감자들

### - 순교자, 이기풍 목사

1936년경부터 일제가 전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탄압해 오던 중에, 1938년 9월,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한국 개신교 전체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일제는 1940년 11월 15일 새벽,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이던 이기풍 목사를 비롯한 순천노회 소속 목사 17명 전원을 감금하고 투옥했다. 특히 이기풍은 미국 선교사와 내통한 미 제국주의의 간첩,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일본의 패망설을 유포한 불경죄 등의 죄목이 추가되어, 악명 높던 여수 경찰서에 감금되었다. 고령에 심한 고문으로 더 이상 앓아 있기 힘들게 되자 일제는 병보석으로 출소시켰다. 1942년 6월 13일 주일, 이기풍 목사는 양쪽에 부축을 받으며, 여수 남면 우학리 교회에서 마지막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며, 아이들이 신사에 올라가서 놀지도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1942년 6월 20일 주일 아침 8시, 여수 남면 우학리 섬 목사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기풍 목사는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험난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로서, 일제 강점기 한국교회의 굴욕스런 역사에 한 줌의 소금과 같은 존재였다.



<http://cafe.naver.com/artvisionkorea/113>

### - 식지 않는 전도의 열정

제주도 부임 후 7년간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1916년에 전라남도 광주 북문안 교회의 초대목사로 부임하였으나 1918년에 실음병(목소리가 나지 않는 병)을 앓게 되면서 목사직을 사직하였다. 약 1년 만에 병이 치유되어 1919년 10월부터 순천을 교회를 담임하면서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다. 그는 한국인 최초의 목사라는 특권을 이용해 큰 도시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음에도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좁은 길을 걸었고, 고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다. 여수군 남면 우학리라는 작은 섬에 복음을 전하려 들어가서도, 그는 돌산, 완도 등 도서지방을 순회 전도하면서 교회 개척에 심혈을 기울였다.

발췌, 정리: 편집부 한연선

출처 :종교 신문, www.ds-ch.org, woohakch.ijesus.net

## Kids Club, God’s Answer 키즈클럽, 하나님의 응답

MANY PEOPLE AT EMMANUEL HAVE BEEN WONDERING WHAT IS KIDS CLUB? I COULD GIVE A SIMPLE ANSWER AND SAY THAT IT’S A FREE AFTER-SCHOOL PROGRAM THAT WE RUN FOR THE STUDENTS AT GEORGE MAYNE ELEMENTARY SCHOOL IN THE TOWN OF ALVISO. WE MEET EVERY WEDNESDAY FOR 1.5 HOURS TO TEACH THE BIBLE, PLAY GAMES, EAT SNACKS, AND SING SONGS. BUT KIDS CLUB IS SO MUCH MORE THAN THAT. KIDS CLUB IS NOTHING LESS THAN GOD’S ANSWER TO PRAYER FOR OUR CHURCH. **임마누엘의 많은 분이 키즈 클럽이 뭔지 궁금하셨습니다.** 간단히 답을 드리면, 키즈 클럽은 알비스에 있는 조지 메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베푸는 방과 후 활동입니다. 수요일마다 1시간 30분씩 성경을 배우고, 게임도 하고, 간식을 먹고 노래도 같이합니다. 하지만 키즈 클럽에 대한 얘기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키즈 클럽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BACK IN OCTOBER 2014, PASTOR SON CALLED IN SOME OF THE PASTORS (I.E., PNEUMA, YOUTH, CM) FOR A MEETING ABOUT HIS VISION FOR EMMANUEL TO SERVE THE PEOPLE LIVING IN ALVISO, A SMALL TOWN DOWN THE STREET FROM



OUR CHURCH. WHO IS IN ALVISO? AGAIN, I CAN GIVE A SIMPLE ANSWER AND SAY THAT THEY’RE MOSTLY LOW-INCOME, HISPANIC FAMILIES. BUT TO GO DEEPER, WE MUST ASK WHO DOES GOD SEE? HE SEES PEOPLE WHO A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AND HE HAS COMPASSION ON THEM (MATT 9:36). 지난 2014년 10월, 손 목사님께서 뉴마, 중고등부, 그리고 CM의 전도사님들을 모으시고 우리 교회가 알비스 지역(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을 섬기는 비전에 대해서 나눠 주셨습니다. 알비스는, 간단히 말하면,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며 히스패닉인 마을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로 보실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무력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9:36)

JESUS SAW THE LOST AS A PLENTIFUL HARVEST WHERE THE LABORERS WERE FEW. GOD’S LABORERS WERE INDEED VERY FEW IN THE ALVISO COMMUNITY AT THIS POINT IN TIME. SAVE FOR A FEW FAITHFUL LADIES LABORING TO BRING THE GOSPEL TO ALVISO THROUGH THE CHILD EVANGELISM FELLOWSHIP (CEF) ORGANIZATION, GOD’S PEOPLE WERE VIRTUALLY DOING NOTHING FOR THE LOST IN ALVISO. 하나님께서는 잃은 영혼들을 추수할 풍성한 곡식으로 보셨

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알비스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CHILD EVANGELISM FELLOWSHIP(CEF) 단체에서 몇몇 믿음의 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빼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비스를 위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BUT GOD DIDN’T FORGET HIS SHEEP. “THEREFORE PRAY EARNESTLY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MATT 9:38). GOD LED HIS PEOPLE AT EMMANUEL TO PRAY FOR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AND SERVE OUR LOCAL COMMUNITY. IN FACT, WHEN OUR CHURCH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ONE OF THE PRAYERS WAS THAT WE WOULD SERVE THE COMMUNITY THAT WE FOUND OURSELVES IN. PRAISE BE TO GOD, FOR WHEN WE PRAY, GOD ANSWERS!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양 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9:38)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지역 사회와 연결하여 섬길 기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현재 주소로 이전할 당시 교회 기도제목 중의 하나가 교회가 속한 지역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THE INITIAL IDEA WAS TO OFFER ACADEMIC TUTORING TO THE STUDENTS OF GEORGE MAYNE SO THAT OUR CHURCH COULD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 ALVISO COMMUNITY AND EVENTUALLY INVITE THEM TO OUR CHURCH. PASTOR SON'S VISION EXTENDED INTO THE LONG-TERM FUTURE WHERE WE WOULD HELP PLANT A HISPANIC CHURCH.

첫 계획은 죠지 메인 학생들과 과외수업 하는 일을 통해 알비소 지역과 관계를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비전은 더 멀리 나아가 히스패닉 교회를 세우는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THE TEAM THAT PASTOR SON PUT TOGETHER AGREED WITH THE VISION, BUT WE REALLY DIDN'T KNOW WHERE TO START. IN THE PAST, OUR CHURCH HAD TRIED TO SERVE THE STUDENTS AT GEORGE MAYNE WITH TUTORING, BUT THAT WORK FELL THROUGH THE CRACKS. WOULD THE SCHOOL TRUST US TO SERVE THEM AGAIN?

WOULD WE FIND ENOUGH VOLUNTEERS TO START A MINISTRY? HOW WOULD WE HAVE THE OPPORTUNITY TO PROCLAIM THE GOSPEL TO THE STUDENTS? 손 목사님께서 세우신 팀은 목사님의 비전에 동의하긴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과거에 죠지 메인 학생들을 과외 지도를 통해 돕는 시도를 해보았지만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학교 측이 우리가 다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 사역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원 봉사자들이 충분히 모일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게 될까?

WE WERE AT A LOSS, BUT BY GOD'S PROVIDENCE, ONE OF OUR CHURCH MEMBERS FOUND OUT ABOUT A CHRISTIAN NON-PROFIT ORGANIZATION CALLED, KIDS CLUB CONSULTANTS, THAT HAD BEEN HELPING CHURCHES PARTNER WITH PUBLIC SCHOOLS IN THE BAY AREA FOR THE PAST 15 YEARS.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EQUAL ACCESS ACT WRITTEN INTO FEDERAL LAW, WHICH ALLOWS CHURCHES TO USE PUBLIC SCHOOL FACILITIES TO RUN PROGRAMS



AFTER SCHOOL HOURS,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섭리로 성도님 한 분이 베이지역 공립학교에서 15년 넘게 섬겨온, 기독교 비영리단체인 Kids Club Consultants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Equal Access Act라는 연방법에 의해 교회가 방과 후에 공립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THE VISION FOR KIDS CLUB IS FOR IT TO BE A DOOR FOR THE CHURCH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 SCHOOL AND COMMUNITY. THE HOPE IS THAT OUR WORK WOULD RESULT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HEARTS AND LIVES OF THE KIDS, WHICH WOULD IN TURN HELP US REACH THE PARENTS AND THE REST OF THE COMMUNITY.

키즈 클럽의 비전은 이 사역이 지역 학교와 사회에 여는 교회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소망은 저희 사역으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과 삶에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가 저희에게 부모들과 지역 사회에 연결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THE CONSULTANTS WERE COMMITTED TO GIVING US ALL THE RE-

SOURCES, TRAINING, AND SUPPORT THAT WE NEEDED TO START OUR OWN KIDS CLUB AT GEORGE MAYNE. ONCE WE MADE THE DECISION TO GO FOR IT, ALL THE PIECES STARTED FALLING INTO PLACE. THE PRINCIPAL WELCOMED OUR CHURCH TO RUN KIDS CLUB, WE RECRUITED ENOUGH VOLUNTEERS FROM OUR CHURCH, THE SCHOOL DISTRICT APPROVED OUR USE OF THE SCHOOL FACILITY, AND THE PARENTS RESPONDED POSITIVELY TO OUR HANDING OUT FLYERS FOR THE CLUB. ON FEB. 25, WE HAD OUR FIRST KIDS CLUB MEETING. EVERY WEEK AFTER WENT SMOOTHLY UNTIL OUR FINAL MEETING ON MAY 13 WHEN WE ENDED WITH 34 KIDS, 13 VOLUNTEER STAFF, AND 30+ MEMBERS ON THE PRAYER TEAM.

(키즈클럽의) 상담가들(CONSULTANTS)은 죠지 메인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저희에게 필요한 자원, 훈련, 그리고 도움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시작하기로 하자, 모든 부분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키즈 클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교회 내에서 필요한 자원 봉사자들이 충분히 채워졌고, 학교 당국에서 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저희가 나눠 준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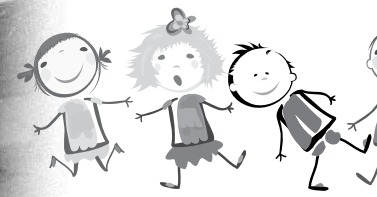


홍보광고에 부모님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월 25일에 저희는 첫 클럽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매주, 34명의 어린이와 13명의 자원 봉사자들 및 3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5월 13일에 마지막 모임을 가질 때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GOD REALLY PROVIDED FOR US IN EVERY WAY TO MAKE OUR FIRST RUN WITH KIDS CLUB AT GEORGE MAYNE A SUCCESS. THE PRINCIPAL INVITED US BACK FOR THE 2015-16 SCHOOL YEARS SAYING THAT WE WERE THE ONLY GROUP THAT SHE DIDN'T HEAR ANY COMPLAINTS ABOUT BECAUSE OF OUR RESPECT FOR THE SCHOOL AND OUR POSITIVE INFLUENCE ON THE STUDENTS. THE STUDENTS REALLY ENJOYED KIDS CLUB AND ASKED FOR US TO MEET EVERY DAY. THEY'VE ALSO TOLD US THAT THEY DIDN'T BELIEVE IN GOD BEFORE, BUT THAT NOW THEY DO. THE PARENTS SHARED THAT THEY'VE SEEN POSITIVE CHANGES IN THEIR CHILDREN AND HAVE ASKED THAT WE MAKE THE PROGRAM LONGER AND MORE FREQUENT. THIS IS ALL CREDIT TO OUR PRAYER-ANSWERING HEAVENLY FATHER.

하나님께서서는 조지 메인에서 처음으로 발을 댈 댄 키즈 클럽을 위해 모든 면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2015-16년에도 (가을학기부터) 계속할 수 있게 허락하면서, “우리 학교를 존중하는 태도와 학생들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력 덕분에, 키즈 클럽이 유일하게 아무런 불평도 듣지 않은 그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은 키즈 클럽을 너무 재미있다고 해서 매일 만나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보인다고 하며 프로그램을 더 길게, 더 자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HAVING KIDS CLUB HAS ALSO HELPED OUR CHURCH TO RALLY TOGETHER TO REACH THE LOST OUTSIDE OUR CHURCH WALLS. SOME OF THE GROUPS AT EMMANUEL INVOLVED IN THIS EFFORT INCLUDE: KM, PNEUMA, HOP TO GOD CHILDREN'S CHOIR, AND INDIVIDUALS WHO PRAYED AND GAVE FINANCIALLY TO SUPPORT THE WORK.



WE WERE ALSO ABLE TO HOST MORE THAN A DOZEN STUDENTS FROM KIDS CLUB AT OUR RECENT VBS PROGRAMS. 키즈 클럽은 교회가 교회 벽을 넘어 교회 밖에 있는 잃은 영혼을 향해 합심하도록 돕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한 임마누엘의 그룹 중에는 한어 회중, 누마, HOP TO GOD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12명이 넘는 키즈 클럽 어린이들이 저희 VBS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THE GROUND HAS BEEN TILLED, SEEDS HAVE BEEN PLANTED, AND THE DOOR HAS BEEN OPENED UNTO US FOR THE LABOR OF AN ABUNDANT HARVEST. WE'VE ADOPTED GEORGE MAYNE ELEMENTARY SCHOOL AND THERE'S NO QUESTION THAT GOD HAS BEEN LEADING US AND PROVIDING FOR US IN EVERY WAY. THE QUESTION NOW IS WHETHER ALL OF US AT EMMANUEL WILL TAKE PART IN THIS LABOR. WILL WE SIT ON THE SIDELINES OR WILL WE CONTINUE TO OBEY IN FAITH? AS 'THE FATHER OF MODERN MISSIONS', WILLIAM CAREY, ONCE SAI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GOD HAS ANSWERED OUR PRAYERS AND HAS STARTED A GREAT WORK. NOW, OUR CHANCE TO CONTINUE IT. I PRAY THAT WE DO. SEND US LORD!

발이 경작되었고 씨가 뿌려졌으며, 이제 풍성한 추수를 위해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조지 메인 초등학교를 입양했고, 하나님께서(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셨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할 것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앉아 구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할까요? '현대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케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기회가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내 주소서!

글 DANIEL SO (CM, PASTOR), 소 다니엘 전도사  
번역 편집부

## GOD'S provisions for Kids Club



EVERYONE IS CALLED TO SERVE IN MINISTRY FOR DIFFERENT REASONS, BUT I THINK IT IS OUR TENDENCY TO RESPOND IN THE SAME WAY: WITH HESITATION. SO, I WOULD LIKE TO START MY TESTIMONY WITH REASONS WHY I DID NOT WANT TO JOIN KIDS CLUB, AND HOPEFULLY GOD'S PROVISIONS FOR ME CAN ENCOURAGE YOU AS WELL.

사람마다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다양하지만, 주저하는 경향은 공통으로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키즈 클럽 사역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주신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THERE WERE LITTLE THINGS, LIKE HAVING TO TAKE 3 HOURS OUT OF MY LUNCH ON WEDNESDAYS. WEDNESDAYS ARE MY BUSIEST DAYS AND I AM JAM-PACKED WITH MEETINGS. KIDS CLUB COMMITMENT TAKES ME OUT OF THE OFFICE FROM 12:30-3PM, AND I ALWAYS HAVE SUPER IMPORTANT MEETINGS WITH OUR COFOUNDER OR VP RIGHT AT 3PM. DURING THOSE MEETINGS, I WAS WORRIED THAT I WOULD BE TOTALLY RUSHED/HECTIC/UNPREPARED, AND I WILL ADMIT THAT THERE ARE A FEW TIMES WHERE I WOULD JUST START RAMBLING

BECAUSE I DIDN'T REALLY KNOW WHAT I WAS TALKING ABOUT THAT,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수요일 점심 시간대를 세 시간이나 비워야 한다는 것. 수요일은 미팅 등 여러 가지로 인해 제일 바쁜 요일입니다. 키즈 클럽을 위해서 오피스의 제 자리를 12:30부터 3시까지 비워야 했는데, 3시에는 항상 공동 설립자나 상사와 제일 중요한 미팅을 합니다. 이 미팅시간 때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서두르게 되고 부담도 많이 갖게 되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기 시작할 때가 많았습니다.

EVEN IN THOSE 'TRIVIAL' THINGS, GOD PROVIDED. MY PARENTS ALWAYS COME RIGHT AWAY, SO I CAN LEAVE RIGHT AT 2:40 AND GET TO THE OFFICE BY 2:55. I WORK IN DOWNTOWN MOUNTAIN VIEW AND IF YOU KNOW ANYTHING ABOUT THE AREA, PARKING ON CASTRO STREET IS IMPOSSIBLE. BUT GOD ALWAYS SAVES ME A PARKING SPOT AND I SOMEHOW IMPOSSIBLY ALWAYS GET A PARKING SPOT RIGHT AWAY, RIGHT NEXT TO THE OFFICE! AND MY BOSS AND COWORKERS ARE SUPER UNDERSTANDING AND ENCOURAGING.

이런 '하찮은' 상황도 주님이 돌보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2:40에 저를 태우러 오셔서 2:55에 오피스까지 데려다주십니다. 오피스가 마운틴뷰 다운타운에 있는데, 그 지역을 아시겠지만, 캐스트로에 주차하기는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위해 주차장 한 자리를 준

비해 놓으셔서, 상상 불가능하지만 오피스 옆에 있는 자리에 바로 주차하게 하십니다! 저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도 이해심 많게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BUT, THERE WERE BIG ISSUES, LIKE THE ISSUES OF MY HEART THAT MADE ME HESITANT TO SERVE IN KIDS CLUB. WHEN IT STARTED, I WAS STRUGGLING WITH MY SINS AND WORRYING IF I WOULD BE A BAD LEADER OR ROLE MODEL TO THESE KIDS. FURTHERMORE, HOW WOULD I BE ABLE TO LOVE THESE KIDS, WHEN I HAVE A REALLY SMALL CAPACITY TO LOVE AND GET REALLY ANNOYED REALLY EASILY? 하지만 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키즈 클럽에서 섬기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제 마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었고, 제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리더 혹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쉽게 불쾌해 하는, 아주 작은 용량의 사랑을 가진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WHAT GOD HAS REALLY SHOWN ME, HOWEVER, IS THAT IT IS GOD WHO QUALIFIES ME. HE LOVES ME, NOT BECAUSE I AM WORTHY. HE KNOWS ALL OF MY SINS AND UNWORTHINESS, BUT THEY ARE SO SMALL AND INSIGNIFICANT NEXT TO HIM. SO IF HE WANTS TO USE ME, THEN HE WILL BECAUSE I DON'T ADD OR SUBTRACT FROM GOD'S GLORY. WHATEVER THE REASON IS, HE WANTS ME TO BE AT

KIDS CLUB. IT DOESN'T MATTER IF I AM 'WORTHY' OR NOT, BECAUSE EVERYONE IS UNWORTHY TO BE LOVED BY GOD. BUT IT ISN'T BY OUR LOVE OR STRENGTH THAT WE LOVE GOD AND COME TO CHURCH, AND IT ALSO ISN'T BY OUR LOVE OR STRENGTH THAT WE ARE AT KIDS CLUB. IT'S GOD THAT SHINES THROUGH US, SO IF HE CHOOSES US AS HIS VESSEL, THEN HE WILL QUALIFY US AND HE WILL REDEEM US.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게, 자격을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죄와 합당하지 못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어떡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하는 것도, 거기서 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키즈 클럽에 동참하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이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사랑이나 힘으로 키즈 클럽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시기 위해 그릇을 선택하셨다면, 그 그릇을 합당하게 빛시키고 구속하실 것입니다.





HOW GOD PROVIDES FOR ME MAKES ME REALIZE THAT HE HAS A PLAN HERE AT GEORGE MAYNE, AND WHAT A BLESSING IT IS THAT I AM A PART OF THAT PLAN. EVERYTHING THAT I WENT THROUGH IN MY LIFE, EVERY TWIST/TURN/SURPRISE/UP/DOWN/STRUGGLES/ ETC., WITH GOD KNOWING HIS PLAN FOR ME, AND KNOWING THAT EVEN FOR A PINCH OF TIME IN MY LIFE, THAT I WOULD BE A PART OF KIDS CLUB. HE ORCHESTRATED THE LIVES OF EVERY SINGLE KID, KIDS CLUB LEADER, SCHOOL STAFF, ETC. KNOWING THAT WE WOULD ALL CONVERGE IN 2015 AT GEORGE MAYNE ELEMENTARY. HE PLANNED SPECIFICALLY FOR KIDS CLUB, AND HE ALSO PLANNED SPECIFICALLY FOR ME TO BE THERE. WHAT A BLESSING AND HONOR IT IS TO SERVE! BEING ABLE TO SERVE GOD IN THIS WAY HAS BEEN SUCH A PRIVILEGE AND JOY IN MY LIFE. FOR GOD TO INCLUDE ME IN HIS PLANS, EVEN THOUGH I AM SO SMALL AND WEAK, MAKES ME FEEL SO LOVED AND BLESSED BY GOD.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보면서 조지 메인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으며, 이 뜻에 동참할 수 있음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제 삶뿐 아니라 키즈 클럽에 오는 한 아이 한 아이, 선생님들, 학교 관계자들 등,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2015년에 조지 메인 학교에서 만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키즈 클럽을 예정하시고, 제가 그곳에 있도록 뜻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명예로운 일인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제 삶의 특권이 자 기쁨입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저를 그분의 뜻에 포함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GOD HAS REALLY CONVICTED ME THAT KIDS CLUB ISN'T JUST A RANDOM SELECTION OF KIDS, IT ALSO ISN'T JUST A COUPLE OF KIDS CHOSEN BY GOD, AND THEN SOME RANDOM TO FILL UP THE REST. EVERY SPECIFIC KID WAS INTENDED BY GOD TO BE THERE, FOR

GOD'S OWN SOVEREIGN PLAN. WE DON'T KNOW WHERE THESE KIDS ARE GOING TO GO, AND HOW THEY ARE GOING TO GROW UP, OR WHERE LIFE WILL LEAD THEM. WE DON'T KNOW WHAT COMMUNITIES THEY WILL BE A PART OF, OR WHAT COMMUNITIES THEY WILL LEAD. SO HOW MUCH MORE IMPORTANT IT IS THAT WE PRAY FOR EACH ONE OF THEM THROUGHOUT THE WEEK AND EVERY DAY THAT THEY WILL MEET GOD OR BE AFFECTE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께서서는 키즈 클럽의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모인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제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 아이 한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자랄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의 일원이 혹은 지도자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매일 그리고 매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ALSO, GOD DIDN'T CALL EACH TEACHER TO COME VOLUNTEER INDIVIDUALLY, OUTSIDE OF CHURCH. HE CALLED THEM 'THROUGH' THE CHURCH. GOD INTENDED SPECIFICALLY FOR KEPC AS A CHURCH TO BE PARTNERED WITH GEORGE MAYNE, NOT MERELY EACH VOLUNTEER AS AN INDIVIDUAL. SO, WE AS A CHURCH HAVE TO PRAY FOR THE KIDS IN KIDS CLUB AND GEORGE MAYNE, AND FOR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IES.

또, 하나님은 각 자원봉사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개인 봉사자가 아닌 KEPC(임마누엘 교회)가 조지 메인 학교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키즈클럽과 조지메인 학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ON APRIL FOOLS, WE ASKED PNEUMA TO PRAY FOR SEVERAL PRAYER REQUESTS. WE WERE WORRIED THAT WE WOULDN'T BE ABLE



TO USE THE CAFETERIA. WE WERE WORRIED THAT THE KIDS WOULD BE EXTRA ROWDY AND UNCONTROLLABLE BECAUSE IT WAS APRIL FOOLS. I PERSONALLY FELT VERY DISCOURAGED AND I STARTED DOUBTING WHETHER OR NOT WE WERE MEANT TO BE THERE. BUT AT THE LAST MINUTE, THE CUSTODIAN LET US IN AND WE WERE ABLE TO START KIDS CLUB WITHOUT A HITCH! THAT DAY, ONE OF MY KIDS BEGAN TO UNDERSTAND AND BECOME REALLY INTERESTED IN THE DEPTH AND WEALTH OF GOD'S LOVE. ANOTHER LEADER WAS ABLE TO SHARE THE GOSPEL WITH HIS OLDER BOYS. THE GRANDPA OF ANOTHER KID CAME UP TO US AND TOLD US HOW MUCH HE APPRECIATES US, AND HOW HE KNOWS THAT HIS GRANDSON'S GOOD BEHAVIOR HAS BEEN A PRODUCT OF KIDS CLUB, AND THAT THIS IS GREAT FOR THE COMMUNITY AND FAMILIES HERE.

만우절(4월 1일)에 저희가 누마 앞으로 몇 가지 중보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저희가 카페테리아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고,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층 더 통제되기 힘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키즈 클럽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낙심되었었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는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청소부 아저씨가 저희에게 건물 사용 허락을 했고,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클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한 선생님은

그 그룹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제 그룹에 있는 지오가 비로소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라이자의 할아버지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시며, 일라이자의 바른 품행이 키즈 클럽의 결과라고, 키즈 클럽이 이곳 가정들에, 이 마을에 얼마나 좋은지 말씀해주셨습니다.

WITHOUT YOUR PRAYERS, KIDS CLUB CAN'T BE POSSIBLE. YOU ARE A PART OF OUR MISSION. THE LEADERS ON WEDNESDAYS AREN'T THE ONLY ONES DOING THE WORK. YOUR PRAYERS ARE POWERFUL AND MAKE A DIFFERENCE AT KIDS CLUB. PLEASE CONTINUE TO PRAY FOR US!

기도가 없으면 키즈 클럽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의 일부입니다. 수요일에 자원봉사로 나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며, 수요일 클럽 시간에 분명한 영향을 끼칩니다.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세요!

글 SOPHIE LEE (KIDS CLUB LEADER, PNEUMA)  
번역 편집부

# 조지 휘필드

George Whitefield, 1714-1770

휘필드는 1714년 영국 남서부의 도시인 글로스터(Gloucester)에서 태어났다. 여관 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청소년 시절은 결코 신앙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1733년 옥스퍼드의 펴브로크(Pembroke) 칼리지에 입학한 후부터 그의 삶은 급변하고 있었다.

<http://jgduesing.tumblr.com/post/50486268515/the-whole-world-is-now-my-parish-footnotes-on>



1735년 회심한 그는 홀리 클럽의 회원이 되었고 훗날 함께 복음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했던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제임스 허비, 윌리엄 모건 등을 포함한 친구들과 교제하였는데 이들은 1729년 봄에 시작된 홀리 클럽(Holy Club) 창립회원들이었다. 이 모임은 후일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과 영적 각성 운동을 이끌어간 동력원이 되었다. 이들의 엄격하고도 철저한 시간 관리, 규모 있는 생활 방식 때문에 메소디스트(Methodists)라고 불린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휘필드에게 큰 변화를 준 책 중의 하나는 헨리 스쿠갈(Henry Scougal)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이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그에게 중생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복음적 견해를 확립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1736년 6월 20일 성직(副祭) 임명을 받으므로 영국 국교회 성직자가 된 그는 자기의 고향인 글로스터의 성 메리 드 크립트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설교자로서 그의 삶을 이끌어간 중요한 힘이 되었다. 그의 설교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목마른 영혼들에게 끊임없는 영적 해갈을 주었고 이 땅에서의 지친 삶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는 수많은 청중이 모여 들었다. 휘필드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은 그가 1739년부터 옥외설교 혹은 야외설교를 시작한 일이었다.

그해 2월 그는 브리스톨 근처 킹스 우드 지방 광부들에게 첫 야외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약 2만 명이 운집할 정도로 상당한 효과를 주었다. 이곳은 광산 도시로서, 산업혁명 초기 당시 이들은 영국 국교회의 관심밖에 있었다. 휘필드는 영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눈길을 돌려 전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4월에는 런던에서도 야외 설교를 시작하였다. 그는

공터나 들판에서 설교하였는데 때로는 수만 명이 운집하기도 했다. 1739년 4월 29일 자 일기에는 “약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옥외 설교는 당시 저조한 예배참석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반대하는 영국 국교회의 벽을 넘는 방안이기도 했다. “길과 산, 물가”로 나가서 전도하며 옥외에서 설교하였던 예수님의 설교는 그의 모범이 되었다. 휘필드의 옥외집회, 야외 설교 그리고 극장 전도, 가정 선교, 도시 선교 등은 당시 교회로는 상상도 못 하던 일이었다.

그래서 토마스 찰머(Thomas Chalmers, 1780-1847)는 휘필드의 방법을 “공격적 방법”(aggressive system)이라고 불렀다. 휘필드는 1736년 6월 26일 주일 그의 고향인 글로스터에서 첫 설교를 한 후부터 1770년 9월 29일 미국 뉴베리 포트(Newbury Port)에서 5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34년간 그는 오직 한 가지 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몰두하였다.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웨일즈에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가 인도했던 공중집회는 1만 8천 회에 달했고 스코틀랜드를 14회나 방문하였다. 지금부터 250년이 넘는 그 당시의 도로, 교통, 통신 시설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3-4개월이 소요되는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을 무려 7번이나 방문한 일 또한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 당시까지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도 이처럼 많은 대중에게 그만큼 많은 설교를 한 일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로이드 존스의 평가는 거짓됨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생애는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었다. 영국이나 미국 내에서의 그의 헤라클레스적인 엄청난 노고는 성령의 능력을 언급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출처: www.LloydJones.org

# 화요 여성 예배로의 초대

언젠가 손원배 목사님께서 화요여성예배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사무엘을 낳은 아버지인 엘가나 두 사람 중 누가 더 성공한 삶을 사신 것으로 보일까요?” 우리 모두의 대답은 사무엘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엘가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였던 한나가 있어 성공한 남편이요, 성공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으나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아내,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말이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삼상 8:3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 같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고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인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나가는 역할의 큰 비중이 아내와 엄마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화요여성예배는 건강한 가정 세움을 사역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요여성예배는 교회 안과 이 지역의 여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 내는 자로 세워지고,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짐을 목적으로 모이는 여성모임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가슴 설레는 예배를 향한 기대



감과 소그룹 활동에서 성도들 간의 만남을 향한 기대감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 예배를 통한 회복된 삶

저는 여성사역부 중보기도 팀장 이현아B 집사입니다. 7년 전, 저는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고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두 살이 된 큰 아이와 백일이 지난 둘째 아이를 데리고 화요 여성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때, 화요 여성예배는 제게 큰 힘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성들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갖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던지요... 같은 여성이라서 서로의 아픔을 깊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었지요. 제겐 화요일이 영혼과 육신의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Child Care에 아이들을 맡기고, 앉아서 찬양을 부를 때면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의 모든 피로가 눈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화요 여성예배를 생각하면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사역부를 이끌어가시는 분들, 자매님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 주셨던 분들, 맛있는 식사를 정성껏 만들어 주셨던 분들, 소그룹을 인도해 주셨던 분들, 찬양으로 섬겨 주셨던 분들, 아이들을 돌보아 주셨던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 소개**

화요여성예배에서는 이 지역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새 생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음악회(상반기)와 주제강의(하반기)를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청될 새 생명을 위해 사역 2달 전부터 중보기도 모임에서 새 생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지난 상반기 새 생명 음악회에 21분이 초청되어 복음을 들었고 그중 3분이 예배자로 인도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제 강의는 새 생명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여성, 건강한 아내, 건강한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세우가기 위해 여러 소그룹 활동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 양육자가 동반자를 일대일로 만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습니다. (인도자 - 정선희, 손경아 외 다수의 훈련된 양육자들)

**큐티 세미나와 나눔방** :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안내해 줍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나누는 나눔방을 통해 치유와 중보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자 - 박옥진, 정구옥, 유영주, 김희순, 박중윤, 김민영, 한미성 외 훈련된 인도자들)



**커피 브레이크** :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들을 통하여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는 성경공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생명력 있게 성장하도록 하며,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책별 성경공부입니다. (인도자 - 김백미, 정미경, 권길주)

**기도하는 엄마들 (M.I.P.I)** :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몸소 지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와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 역사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두 명 이상의 엄마들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모여 대화식 합심 기도로 말씀에 비추어 자녀와 학교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인도자 - 손지수, 김혜경, 이채선, 박미라, 한수연)



**성경통독** :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땅을 향해 확산되어 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모임입니다. (인도자 - 박영수, 송성경)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 1~5세의 자녀들을 말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예배드리고 소그룹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교사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 한원, 현영, 최은진, 김난주, 이현경)

베이지역의 여성 여러분, 임마누엘 여성 여러분, 화요여성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글 김혜경 전도사



# M. F. 스크랜턴

(Mary Fletcher Benton Scranton, 1832-1909)

'한국 근대 여성 교육과  
여성 전도의 선구자'



[http://www.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9655](http://www.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9655)

## -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 (이화학당 설립)

스크랜턴 대부인 (함께 온 며느리 <스크랜턴 부인>와 구별하기 위해서 대부인으로 불림)은 이화학당을 통해서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녀는 52세 되던 1884년 미 감리회 해외 여성교회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고, 이듬해 외아들 내외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으며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환경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자신의 집에서 학당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온 학생들은 버려진 아이들과 첩들이었다. 처음엔 낯선 이방인에 대한 이웃 사람들의 불신이 있었지만, 불신이 차츰 사그라지면서 학생들의 숫자는 점차로 늘어났고 조정에서도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이화학당에서는 한동안 한국인 남자 선생이 막을 쳐놓고 그 뒤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호기심 때문인지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한다. 1889년 이화학당의 학생 수는 26명으로 늘어났다. 1896년에 기포드가 쓴 글을 보면 당시 기숙사생이 47명, 통학생이 3명이고, 평균연령은 12살, 최연소자는 8살, 최고 연장자는 17살이었다. 수업은 한글과 영어로 기초과목과 종교 과목을 가르쳤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학생들이 한국적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해서 훌륭한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였다.

## - 전국 곳곳을 다니며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1891년에 이화학당장 자리를 로드 와일러에게 물려주고 미국에 안식년을 다녀온 후부터 그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도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당시 여성 선교사들의 숫자

는 아주 적었고, 온갖 벽들에 둘러싸인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일은 여성들만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스크랜턴은 '전도부인'을 조직하여 동역하였다. 스크랜턴 대부인이 1898년에 쓴 보고서에 보면 모두 8명의 전도부인이 그녀와 동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전도부인은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스크랜턴 대부인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기를 원하여서 각지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907년 74세 때 쓴 보고서를 보면 이 할머니 선교사의 사랑과 열정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열 사람의 선교사가 있었으면 몇 가지 일에만 집중했을 것이고 훨씬 일을 잘해냈을 것이라고 토로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52세의 늦은 나이에 조선에 들어온 스크랜턴 대부인은 24년 동안 조선 여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76세 때 소천하여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다.

편집부 제공 출처: www.yanghwajin.net



이화학당 학생들 - 처음으로 학제가 정비되기 시작될 무렵의 이화학당 학생들 (1905년 경)



전도부인



초기 이화학당 학생들

## 가치란 무엇인가?



브리태니커 사전은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 순위를 말하고 그 사람이 계속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고 영혼 구원이었으며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었다. 불신자를 구원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영혼 구원을 해야 한다.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 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며, 선교는 가치의 변화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때까지 변해야 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한 사람을 갈급해 하고 있다.

1956년 1월 8일, 28세의 나이로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 죽었다. 그는 20살의 나이에 이런 기도를 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신품이 되게 하소서.” 그는 22살에 그의 일기에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세상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겠다는 말이다. 그는 하나님의 가치가 그의 가치가 되길 원했고 그 가치를 위해 살다가 그 가치를 위해 죽기를 원했다. 그는 에콰도르에 가기 전에 이런 글을 썼다. “당연히 두려워 되는 것을 그분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게는 일편단심과 단순함이 필요하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 그가 남긴 일기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준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며...”

편집부 제공, 가치 혁명(김원태 저) 중에서 발췌, 편집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Jim Elliot

<http://fineartamerica.com/profiles/joshua-alexander.html>

## 연근 우엉밥

‘밥’이란 말은 참 정겹습니다. 누가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하면 기분 좋고,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불러주길라도 하면 그 따뜻한 정에 고마울 따름이지요. 이렇듯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이나 ‘정’이란 마음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제게는 따뜻한 밥을 대접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신 분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만난 박소현이란 자매입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새침한 멋쟁이였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힐 것 같은 이미지(?)라고 쓰면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한동안 모임에서 만나고 개인적으로는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인지 그 자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같은 하나님인 것 아시죠?)을 나누고, 공감하며 그녀는 새침한 멋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쟁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에 물도 안 묻힐 것 같던 그녀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막 짜고 맵고 해도 감사히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요리’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던 그 자매가 밥 먹자며 불러준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저와 같이 간 일행은 그 자매의 식탁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무언가 고상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색색이 싱그러운 샐러드와 연어 요리를 서브해 주었는데 참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밥!! 그것도 몸에 좋은 우엉이 잔뜩 들어간 ‘연근 우엉 밥’이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 위에 양념장 한 스푼 떠서 쓱쓱 비벼 한입 무니, 건강한 우엉 향내가 뚝뚝 퍼졌습니다. 와우!!! 그 날의 백미는 바로 ‘연근 우엉 밥’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 자리에서 레시피를 물으며 그녀에게 한 수 배웠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음도 배웠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다른 주로 이사를 합니다. 나의 무심함으로 있을 때는 연락도 자주 못했으면서 막상 떠난다니 많이 서운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순수하고 밝았던 그녀가 좋았노라고,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그녀가 만들어준 연근 우엉 밥에서 풍겼던 건강한 향내처럼 앞으로도 그녀의 삶에 그리스도의 건강한 향이 가득 풍기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연근 우엉 밥을 해 먹을 때마다 그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 〈 연근 우엉 밥 만드는 법 〉

- 재료: 쌀 2컵, 우엉 긴 것 한 대 하고 반대, 연근 작은 것 한 개, 당근 1개
1. 우엉과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채칼을 이용해 채 치고, 연근은 껍질 벗기고 반 갈라 채 칼의 채 칼날을 뺀 채 칼을 사용해 얇게 썬다.
  2. 밥솥에 쌀을 붓고 물을 붓고 (다시마물을 쓰셔도 돼요) 썰어놓은 우엉, 당근, 연근을 넣고 백미 코스로 돌린다.
- 양념간장 만드는 법: 간장 3큰술, 국간장 3큰술, 물 1큰술 반, 양파 반 개 다진 것(양파가 간장에 뽀뽀하다 싶게 많이), 풋고추 3개 정도 다진 것, 마늘 다진 것 반 큰술, 파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참기름 2큰술, 통깨 약간.

양념간장에 양파 다진 것을 많이 넣는 이유는 설탕 대신 양파로 단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 부추나 달래 혹은 호두 다진 것을 넣어도 좋겠습니다. 좀 고급스러워 보이게 만들고 싶으시면 은행을 넣으셔도 되고요. 연근이 없으시면 우엉 양을 조금만 더 늘리시고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목장 모임이나 손님 초대를 하실 때는 제육 볶음 옆에 상추 쌈을 곁들이셔서 함께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이야기

# 커피 여행



“커피를 무슨 맛으로 마시나요?” “글쎄요 ~ 맛있잖아요!” 흔히들 가볍게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이지만 커피 맛이라는 것이 난감하기는 합니다. 쓴 것 같기도 하고 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담백한 것 같기도 하고... 모두 맞는 답들입니다. 커피마다 가지고 있는 커피의 특성과 고유의 맛을 조금 알고 마시다 보면 내가 어떤 커피들을 좋아하는지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커피를 주문하실 때도 ‘쓰지 않은 걸로’ ‘연한 걸로’ 보다는 ‘케냐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5도 남위 25도 사이의 열대/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을 세계지도에 표기하고 보면 하나의 벨트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커피 벨트 또는 커피존 이라고 부릅니다. 커피 원산지는 크게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로 나뉩니다. 주요 원산지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짚어 보려고 합니다.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Ethiopia) - 주요 재배 지역은 시다모 (Sidamo), 짐마(Djimmah), 리무(Limu), 예가체프(Yirgacheffe), 하라(Harrar) 가 대표적이고 커피 이름은 재배 지역 이름으로 붙입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매우 다양한 맛을 내는데 특히 과일 향

과 꽃 향으로 신맛을 많이 지니고 있는 커피들입니다. 케냐(Kenya) - 주요 재배 지역은 케냐산(Mt. Kenya), 엘곤산 (Mt. Elgon), 나쿠루(Nakuru), 카시이(Kasii) 등이 있고 커피로 이름으로는 케냐 더블 에이(Kenya AA), 케냐 이스테이트(Estate Kenya) 등이 있습니다. 케냐 커피는 열대 과일에서 느껴지는 상큼한 신맛과 쓴맛의 균형을 이룬 최상의 커피로 손꼽힙니다.

## 아시아

인도 - 주로 로부스타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생산비율이 1:6 정도 됩니다. 커피 생두를 남서계절풍(몬순 Monsson)에 건조시켜 황금색을 띠는 독특한 향미를 지닌 커피로 특 쓰는 맛, 풀 맛이 났던 쓴맛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 주요 재배 지역은 수마트라(Sumatra), 자바 (Java), 술라웨시(Sulawesi) 등이 있고 커피 이름은 재배지역 이름을 따릅니다. 사향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커피 씨앗을 채취해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인 루왁(Luwak coffee)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커피 중 하나입니다. 커피 맛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먼저 수마트라는 신맛은 약하고 강한 쓴맛 뒤의 달콤함이 특징인 커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커피이고, 자바는 신맛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달콤한 초코릿 향이 나서 예멘의 모카커피와 블렌딩한 모카자바로 유명하고, 술라웨시는 달콤함과 강렬한 감칠맛, 낮은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멘 - 에티오피아에서 전파된 커피가 최초로 재배되기 시작한 나라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과 하와이 코나와 함께 세계에서 유명한 3대 커피 중 하나입니다. 주요 재배 지역은 마타리(Mattari), 히라지(Hirazi), 사나(Sana) 등이며 마타리는 힘이 느껴지는 바다에 섬세한 신맛, 복합적인 아로마, 입

안에 남는 가벼운 단맛 등 훌륭한 맛을 지니고 있으며 예멘의 모카커피는 이국적이고 특별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 아메리카

하와이 - 주요 재배 지역은 코나 섬(Hawaii Kona), 마우이 섬(Maui), 몰로카이 섬(Molokai), 말루라니 (Malulani), 카우아이 섬(Kauai)이 있고 그중 코나 섬(Hawaii Kona)에서 나는 코나 커피는 섬세하고 신맛과 달콤한 향의 부드러운 커피입니다.

자메이카 - 주요 재배 지역은 블루마운틴(Blue Mountain) 지역의 포틀랜드(Portland), 세인트 토마스 (St. Tomas), 세인트 앤드류(St. Andrews), 그리고 세인트 메리(St. Mary), 맨체스터(Manchester) 등이 있고 커피의 황제라고 불리는 블루 마운틴은 아로마가 풍부하며 열은 신맛과 와인 같은 쌀쌀한 맛, 부드러운 쓴맛과 단맛, 스모키한 맛을 두루 갖춘 매우 균형 잡힌 맛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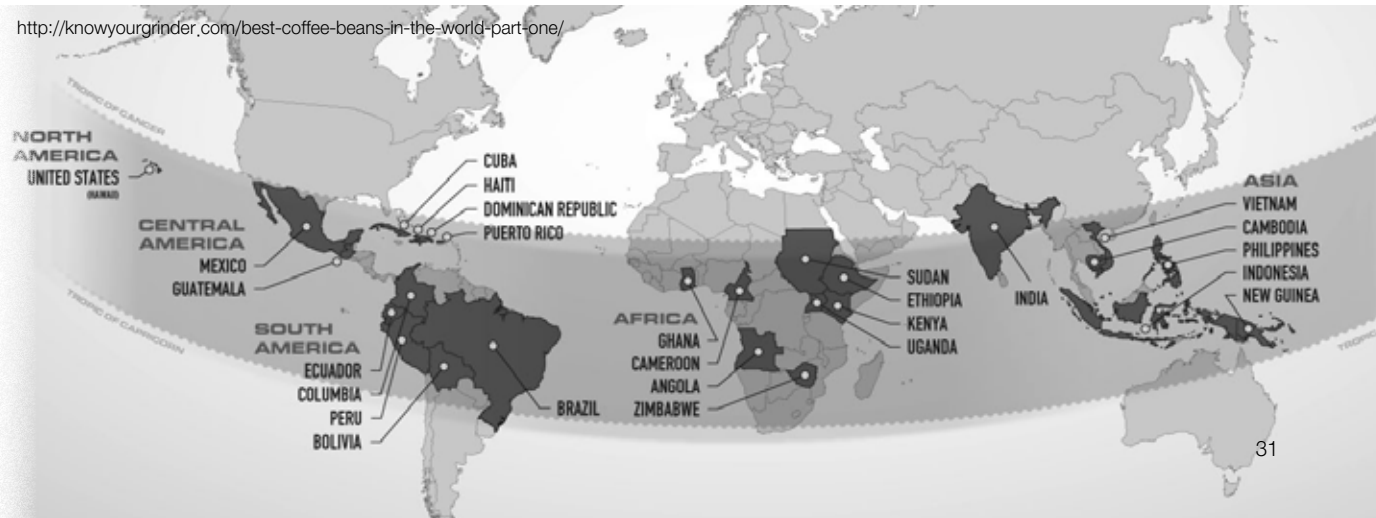
##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 중앙 산악 지역인 마니살레스(Manizales), 아르메니아(Armenia), 메델린(Medellin)으로 전체 생산량의 70%가 생산되며 콜롬비아 커피는 생두의 크기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이름 또한 등급 이름이 먹여집니다. 수프레모(Supremo)는 스크린 사이즈 17 이상, 엑셀소(Excelsos)는 스

크린 사이즈 15-17 중간 정도로 질감과 과하지 않은 산도와 절제된 과일 향으로 균형 잡힌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특히 콜롬비아 수프레모는 감미로운 아로마와 호두 향이 감도는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입니다.

기쁨호에서는 커피의 고유 맛과 향을 조금 알아보았는데 앞서 새 생명 호에서 다룬 것처럼 같은 하와이 코나 커피도 로스팅을 진하게 하느냐 연하게 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는 보통 커피마다 지닌 고유의 맛을 잘 나타내는 정도의 로스팅을 하게 됩니다. (커피 애호가들은 로스팅해주는 곳에서 이런 커피빈을 진하게 또는 연하게 로스팅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합니다)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쓴맛이 적은 종류의 커피 종류를 고르시고 그 중에서도 연하게 로스팅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어떻게 추출하느냐도 커피 맛을 크게 좌우하는데 그것은 다음 호에 다루겠습니다. 그럼 다음 호까지 에티오피아도 다녀오시고 케냐도 들르시고 인도네시아도 가시면서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섬기시는 이웃분들과 커피 여행을 다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전도여행 또한 되셨으면 합니다.

글 김범진



<http://knowyourgrinder.com/best-coffee-beans-in-the-world-part-one/>



##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

오늘날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다. 캐주얼해졌다. 단순히 음악 스타일만 가벼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졌다. 친밀하다 못해 격의와 예의가 사라졌다. 함께 커피 마시고 온라인 채팅하는 친구같은 존재가 되었다.

80년대 시작된 예배의 변화가 결국 의식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변화까지 가져왔다. 80년대 찬양운동은 엄격한 예배의식에서 생기발랄한 찬양으로 전환되면서 예배의 자유를 가져왔다. 90년대는 그 운동이 지역 교회 예배로 수렴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거룩'에서 '친구' 개념으로 변했다. 그것이 최근에는 선을 넘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 자신을 추스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여유도 없이 사람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 산만함을 넘어 방종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예배의 품격, 권위, 진지함, 광휘가 사라졌다.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느낀다. 많은 예배 현장에서 빛바랜 하나님 나라를 토해낸다. 구도자들이 어쩌다 방문한 교회에서 경험하는 주일 예배는 우리끼리만의 언어, 밴드의 시끄러운 반주, 찬양 인도자의 설교 성 멘트, 천국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탁월성이 사라진 2등급에 종속된 예배 모습에 고개를 가웃거린다.

현대 예배는 지나친 청중 의식, 자극적인 감정 주의, 젊은이를 끌어들이는 미끼 등과 같은 불온적인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교회 성장을 위한



필요악 정도로 치부하는 등 불안정한 유행 현상으로 그칠 우려도 있다. 우리 예배의 무한 중심(infinite center)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교체되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인 예배에서 예배의 주체가 바뀌었다. '나의 필요', '내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등등 내가 중심이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열망은 '자기애'라는 우상이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예수께서 혁명적인 선언을 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 15:15-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친구도 친구 나름이다. 유교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10대 어린이와 70대 노인이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다. 동년배 친구와 경륜과 지혜가 있는 할아버지 친구가 다르듯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친구는 인간 친구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관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로 다가오셨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경외해야 할 거룩하고 광대하신 왕이시기도 하다.

마르바 던이 그의 책 《고귀한 시간 낭비》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를 균형 있게 제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와 사랑처럼 편안한 부분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을 가진 분이 아니라 단순히 어디에나 계시는 '친구'나 '형제'로 축소되지는 않는가?

그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재성, 친밀감과 함께 그분의 거룩성, 초월성, 경외감에 대해 균형 있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예배 인도자나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 모두가 예배 가운데 이 부분에 실패할 때 우리의 예배는 자칫 요즘 웬만한 한국 드라마의 찐한 감동보다 못한 2등급 사랑 타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글 이유정 목사  
(예배사역연구소 대표, 리버티대 코리아 예배학 주임교수)



# 백향목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구약 성서에만 약 7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자신들의 왕궁을 지을 때 해상 강국이던 두로에서부터 수입해서 지었던 건축 자재가 백향목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장막(삼하 7장)에 있다고 하나님을 위한 전 짓기를 소망했지만, 그의 소원은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일정량의 곡물과 기름을 두로 왕에게 주는 대신 원하는 만큼 백향목을 가져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이 걸린 예루살렘 성전역사에 동원된 인력은 일꾼만 15만 명이었고, 벌목만을 위해 징발된 이스라엘인이 3만 명,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3,300명이나 파송되었습니다. 산에서 벤 목재는 해로로 옹바로 보내어지고 다시 육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어서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음을 왕상 5-6장, 대하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랍어로 백향목은 “튼튼하게 뿌리를 뺀 강인한 수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해발 2천 미터가 넘는 레바논 산맥의 출고 눈 덮인 지역에서 자라는 침엽수입니다. 추운 곳에

서 자라기 때문에 내구력이 뛰어나고 나뭇진이 많아 충해가 적고 방부력이 뛰어납니다. 지름이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넓는데도 나무가 곧고 높게 자라기 때문에 큰 건축재로 사용되었고 계다가 광을 낼 수 있어 악기재, 조각재, 관재(편집자 주:棺材,널을 만드는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페니키아 인들은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어 해상 무역이나 전쟁을 하기도 했고 목재를 수입한 이집트는 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백향목이 가진 방부제 효능을 알아보고 왕들의 미라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레바논과 그 인접 국가의 많은 지도자들은 백향목을 자신의 궁궐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백향목을 레바논의 영광(사 35:2, 60:13), 억센 힘(시 29:5), 장대함(시92:12-14, 사 2:13), 위엄(왕상 4:33, 왕하 14:9, 속 11:1)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위엄과 힘, 영화 그리고 그 긴 수명으로 인해 영원함을 상징하는 백향목은 현대 시대에도 레바논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레바논 국기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이 백향목 나무이고 레바논 특공대의 베레모와 레바논 항공기(Middle East Airlines)에도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의 백향목 영광은 이제 지나간 날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지나친 벌채로 백향목은 이제는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생태계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자연의 균형이 파괴되고 벌목으로 개척된 경사지는 나무가 없어 홍수 때에는 갈증이 유실되고 모래 먼지만 남는 사막으

로 변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들의 지나친 삼림 훼손을 ‘레바논에 행한 강포’(합 2:17)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한때 수려하고 웅장했던 원시림은 간데없고 그저 간신히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수림을 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과 자연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백향목은 그 자태에서 영광과 부귀를 상징했지만 때로는 인간의 교만과 허세를 상징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건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무는 뽕나무(돌 무화과나무)입니다. 돌이 많은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는 지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돌로 짓고 지붕에 들보를 놓을 때만 목재를 사용했는데 이 지붕의 들보로 주로 사용되던 자재가 뽕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 재료도 아니고 더구나 1년에 260여 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는 이스라엘에서 재질이 단단하고 무거운 백향목은 지붕이 무너질 위험이 많아서 목재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후대의 남유다 왕들이 기울어가는 분열 왕국의 실정에서도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는데 열을 올렸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백향목이 가진 특징으로 인해 그 재료로 지어진 집들이 보여주는 가시적 효과와 이미지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수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 지은 백향목 궁궐과 성전이 그들 안에 찾아든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악

으로 인해 다 훼파되고 소멸하는 수모와 수치를 겪었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고 자랑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적 백향목이 무엇인지, 혹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내가 지어가고 있는 영적 바벨탑은 어떤 것인지 분별해서 자신이 자랑스러워 하는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결과가 우리에게 없도록 자신을 돌아봅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 아무리 좋은 백향목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울무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 뱀으로 우리의 영광이 한때 무성하고 수려했던 없어질 레바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또 흑헌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청아하게 내며 그 넓이와 길이를 더하며 향기를 만들고 발하는 백향목처럼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뿌려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 나가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글 조종연 목사



## 주님 때때로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안되게 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 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몽근



##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

### 양파

양파는 이미 손상이 생겨버린 혈액이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과도하게 지방이 섭취된 것을 없애 주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회복을 도와주는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청국장

청국장에는 낫토키나아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전을 녹여서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에도 아주 좋다.

### 마늘

마늘에는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과 스큐지닌 이라는 성분들이 피를 맑게 해 준다. 그 중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 주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으며 스큐지닌 이라는 성분은 혈액을 확장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 녹차

녹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테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 주고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등 푸른 생선

등 푸른 생선에는 EPA & DHA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나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 주어 피를 맑게 해 주는 음식으로 아주 효과가 있다. 또한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어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다

### 견과류

견과류에는 호두, 잣, 땅콩 등의 종류가 있다. 이런 견과류에는 비타민E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 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성분들은 활성화 산소로 인해서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고 없애 주며 건강하고 깨끗한 혈액을 생성하며 혈관을 보호해 준다. 하지만 견과류에는 지방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조금씩 먹는 게 좋다.

### 해조류

해조류는 다시마, 미역 등이 있는데 다시마에는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주어 혈액의 독성을 제거해 준다. 미역은 보통 출산 후에 산모들이 많이 먹는데 피를 맑게 해 주고 깨끗한 피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미역에 있는 끈적한 점액 물질에 알긴산 성분이 특히 혈액을 깨끗이 하는 작용을 한다.

### 당근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E와 카로틴 성분은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혈관도 튼튼하고 깨끗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 딸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딸기는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좋으며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과일이다.

### 쑥

쑥은 피를 정화하고 부족한 피를 보충해 주며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 몸을 따뜻하게 해 준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며 혈압을 내리게 하고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쑥은 하루 정도 물에 담갔다가 독한 기운을 우려낸 다음 조리하는 게 좋다.

##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원래 우리의 본성 자체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 우리와 거리가 먼 단어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나 자신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끝 없는 패배 의식과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현재시제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걱정거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며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과 조금 후에 일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심과 애통의 곁핍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굴레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의 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갈 5:22). 나의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나 봉사와 희생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벧전 4:11) 예수님께서서는 기쁨을 충만히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진리로 기록해지라(요17:13-1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나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전 영역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8:10)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뻐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뻐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 살전 5:16-18 -

하고...”(시119:8)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Non Stop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그리고 밤늦게 기도하셨습니다. 종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시며,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습관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제삼시 기도 시간에 하루 세 번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을 기도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깨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눅22:31-32)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 밖에 없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믿는 자의 행복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엡6:18)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쉽게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묻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않게 하소서”(시 119:36)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도덕적 차원을 뛰어넘은 영적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의 여러 조각을 말씀으로 하나로 모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하여 쉬지 말고 영광 받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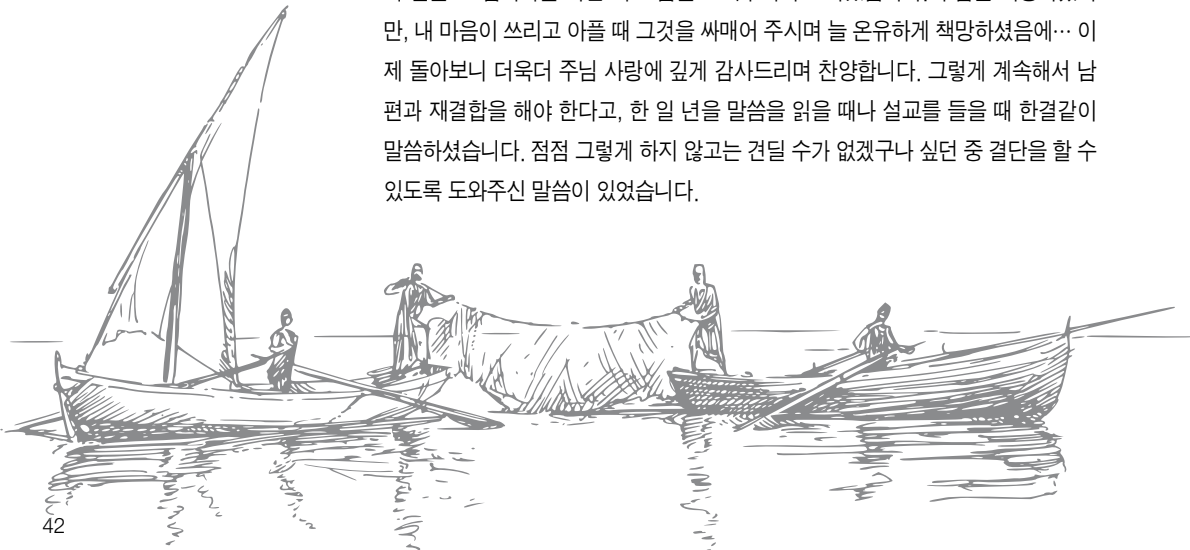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 깊이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적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감사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령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의 늪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12:2)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자존감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체면치레나 편견 그리고 약삭빠름이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범사에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행하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마음이 높아짐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6)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인정하고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범사에 기뻐하려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합니다.(골1:10)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조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글 유미숙 사모

###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세상 어떤 고귀하고 높은 지성의 책보다도,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된 성경책, 그전까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뜻에 맞춰 생각하고 행하도록 나를 인도하고 훈육하는 책, 이 과정은 놀랍게도 따뜻한 훈육이시며, 격분하여 내어치지 않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여정임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간 별거를 하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도, 그 죄 가운데에서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을 주셨는지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8) 라고 말씀하셨고, 하용조 목사님의 “사랑”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찢려 피가 날 것 같으니 열른 그 십자가를 버린 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책망하셨지만,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 그것을 싸매어 주시며 늘 온유하게 책망하셨음에... 이제 돌아보니 더욱더 주님 사랑에 깊게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과 재결합을 해야 한다고, 한 일 년을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그렇게 하지 않고는 건딜 수가 없겠구나 싶던 중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 고기를 잡으라. 시온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막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눅 5:4-6)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셨을 텐데, 저도 순종하고는 싶었으나 믿음이 부족하여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 저희 부부는 서로를 힘들게 할 뿐, 아이에게도 따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순종이라고 하기도 힘든 미약한 믿음으로 재결합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노력했건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가 다음날 고기도 없을 시각에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했던 것 같은, 꺼질 것 같은 피곤함 같았습니다. 잦은 다툼과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임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통해서, 주님은 제 눈을 밝히시고 ‘결혼’ 속에 담긴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 19:6) \*결혼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혼증서를 결단코 쓰지 않으신다는 믿는 자를 향한 주님의 언약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값으로 산 신부가 외도해 집을 나가더라도, 죄의 길에 빠지더라도 그 부인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사랑으로 맞아주신다고요. 죄인지 알면서도 이혼을 선택하려는 제게 돌아오라고, 용서하시겠다고,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인지, 그 앞에 저는 엎드려 울며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권면이 제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결혼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끊지 못할 사랑을 세상에 보이라. 당신의 가정으로 세상에 복음이 아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네, 주님, 이혼은 이제 제게 옵션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이지요...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 하심이 아니라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물을 찢을듯한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갑던 우리 부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여섯 살 짜리 아들이 매일 밤 “하나님, 우리 아빠랑 엄마랑 나랑 다 같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가정으로 기뻐하시는 부모님들을 볼 때에도, 이제는 남편이 든든한 기둥 됨을 순간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을 접고,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도 자세히 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실제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제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그것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는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려본 것뿐이었습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어찌 입으로 다 찬양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 돌아온 베드로 사도에게 “...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눅5:10) 이제 그 말씀대로 저희 가정을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순종하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글 공혜리

\*참조: 결혼에 대한 설교는 JOHN PIPER 목사의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T MAN SEPARATE, PART 1 입니다. WWW.DESIRINGGOD.ORG



## EUNJAE'S BIG DREAM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MISSIONARY. I WILL HELP AND SAVE PEOPLE, GIVING MEDICINE AND TAKING CARE OF THEM. I WANT TO DO THIS JOB BECAUSE I WANT TO TEACH PEOPLE ABOUT THE BIBLE AND TO GIVE OUT FREE BIBLES TO EVERYONE. TO BE A MISSIONARY, I WILL HAVE TO GO TO A MISSIONARY SCHOOL AND WORK WITH A LOT OF PEOPLE FROM ALL PLACES SUCH AS CHINA, KOREA, JAPAN, THE WHOLE NORTH AMERICA, THE WHOLE SOUTH AMERICA AND THE WHOLE ASIA. I WILL ENJOY GOING TO OTHER COUNTRIES, MAKING NEW FRIENDS AROUND THE WORLD AND PREACHING ABOUT JESUS AND GOD.

WHEN I BECOME A MISSIONARY, I WILL NEED A PERSON TO HELP ME PREACH ABOUT JESUS AND GOD. I WON'T NEED A SPECIAL UNIFORM BUT WILL WEAR REGULAR CLOTHES.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HAVE BLACK HEARTS BECAUSE THEY DON'T HAVE JESUS IN THEIR HEARTS DUE TO THE LACK OF TRUST IN GOD AND JESUS. LONG AGO,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CAME BACK ALIVE ON SUNDAY. I CAN'T WAIT TO BE A MISSIONARY AND TEACH PEOPLE ABOUT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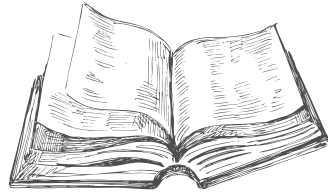


'My Big Dream'은 DON CALLEJON SCHOOL에 다니는 은재가 학교에서 자기 꿈에 대해 쓴 글입니다. 내용이 부족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벌써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선생님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는 것을 놀랍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킨더 때부터 '어와나(AWANA)'를 시작하고 교회에서 빌려 온 선교사의 삶을 그린 애니메이션 DVD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은재가 가진 꿈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꿈과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된 길일지라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수한, 은재 아빠)



글 이은재 (CM, 2학년)

## 화요일 밤의 창세기



미국에서의 저의 삶은 언제나 캄캄한 바다에 노도 없이 작은 배에 떠 있는 듯 두렵고 고단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거짓말처럼 생각나지 않았고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나를 인도해 줄 작은 불빛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쯤,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첫 수업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라고 인도자는 질문하셨습니다. “**빛이 있**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라는 성경 말씀은... 흑암 가운데 있던 저를 위해 주님께서 빛을 보내 주신 듯, 저 멀리 작은 등대 불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요? 이제 손톱이 부서지도록 노를 저어 저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면 되겠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자를 만드신 주님의 뜻이 돕는 배필이었다는 것을 그때 배웠고 끄찍했던 결혼 생활 중에서 제가 돕는 배필로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는 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쯤엔 예비 며느리와 함께 가장 먼저 창세기 공부를 하겠다며 다짐도 하였지요.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있어 주님은 늘 두렵고 언제나 나의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숨었을 때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WHERE ARE YOU?” 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주눅이 들어 숨어있는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수백 번도 더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한주 한주 주님의 말씀은 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자부심이 낮아진 제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은 너무도 달콤했고 제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차곡차곡 주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한 주일을 기다렸고 창세기 말씀을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공부할 때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난 창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내 삶의 고단함을 잊게 하시고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은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들 땐 아이들도 미웠습니다. 아이들을 베틀 끝으로 몰아세우고 다그칠 때도 잤습니다. 사랑한다지만, 관계는 더 불편해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다려 줄 수 있기를,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시선을 방주 위의 창에 머물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서가 장자권을 팔죽한 그릇에 파는 날, 인도자께서는 팔죽을 손수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팔죽을 먹었는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교훈을 먹었습니다. 세상적이고 보이는 것에 조급하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없이 작아져 버린 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마다하고 불쌍 내민 팔죽으로 쉽게 바꾸어 먹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그 붉은 색이 경고가 되어 유혹을 물리칠 힘이 되었습니다.

그즈음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나이 지긋한 하숙생이 들어온 첫 달부터 체크를 바운스 내고,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저를 헐박하고 큰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고 두려웠습니다. 싸울 용기도 없었고 처지도 아니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도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제게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올바른 것에 대해 당당해지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더 친절하게 맛있는 음식으로 그를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늘 약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늘 두려워하며 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저를 끄꿍 매어 주셔서 예서의 팔죽이 나의 본분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 성경공부 시간이면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경험하기 시작

했고 종일 지친 내 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단절된 채 살아온 나만의 세계에서 나와서 사람들 가운데로 조금씩 나오게 된 것은, 이삭이 나이 많아져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할 때, 그의 영안도 어두워지고 그때 이삭의 가족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였습니다. 스스로 목장을 찾았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며 섬김을 배우고, 또 중보기도 명단을 매주 이메일로 보내는 작은 일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 한번도 절실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제게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도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며 불교 신자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며 나도 어쩔 수 없이 야곱이고 죄인이라며 가슴을 치던 일들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밤새 씨름하던 야곱처럼 내 문제를 주님께 간구한 적이 없었던 시간을 기억해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를 도우신 주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삶이 고단하고 외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 위를 걸을 수 있는 은혜 때문에 아프지만, 절뚝거리지만, 그 길을 걷습니다. 성령님께서 절망뿐이었던 제게 주님의 길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평온하며, 제일 옳은 길임을 창세기 공부를 통해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게 회복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길 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경배드리며 그 약속을 꼭 잡고 나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길 간구드리며 생애 처음으로 쓴 이 간증이 주님을 증거하는 날마다의 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유은선





**나도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6살 무렵 옆집 친구를 따라 주일학교에서 몇 번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지만,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서 그 후로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순천에서 유학하며 하숙을 할 무렵, 어머니가 복막염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간 모아둔 통장, 보험서류 등을 맡아들인 제게 비장한 마음으로 전달하시고, 이것저것 당부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몇 년 전 교통사고 후 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그동안 어머니께서 생계를 꾸려 오셨는데, 앞으로 소년 가장이 되어 두 동생을 책임져야 할 짐은 상상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에서 그날 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일 우리 엄마를 살려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없이 그냥 쾌유하셨지만, 그 날 이후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치과 대학 1학년 때,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UBF)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인생 소감을 작성하던 중, 병실에서 절박하게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 선교회에서 1년 정도 성경 공부와 공동생활을 하며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크리스천으로 사는 선배 목자님들의 삶이 여간 답답해 보이지 않았고, ‘이러다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 하나도 못 해보고 죽겠구나!’ 싶어 교회를 뛰쳐나왔습니다. 졸업 후,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 개인병원을 하며 아내를 만나기까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술, 담배 등 못된 짓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선한 마음으로 살고, 거기에 약간의 운만 더 따라 준다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성공이나, 경제적인 성공은 제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고, 노력해도 안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부분들 때문에 좌절과 실패를 겪던 즈음인 2005년,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장모님을 통해 성경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난 것을 위하여 음을 말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55:1, 2A) 대학 1학년 집회 때, 처음 받은 말씀을 장모님으로부터 다시 듣게 된 그 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심을 인정하고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 되어 살았던 죄와 과거의 삶을 회개하며 “양식이 아니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 살았던 삶을 돌이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후, 치과 의사로서 하나님을 변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다니며 성가대 봉사를 하고, 결혼하고, 제자 훈련, 사역훈련, 선교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2012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손이 되어 미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분들이 한국을 도와 지금의 제가 존재 하듯이, 이제는 저도 보답의 손길이 되어 그분들을 돕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졸업한 지 20년 지나, 다시 어린 친구들과 공부하고 시험 보고 환자 보는 늦깎이 치과대학 생활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힘주시고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매우 exciting 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작년에 치과 대학 졸업 후, 하나님께서 WESTERN DENTAL로 인도하시고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이루어진, 도움이 절실한 환자를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소외된 환자를 예수님을 대하듯 치료하겠다’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환자로 가장한 예수님을 날마다 보내고 계십니다. 그간 환자들과 같이 울고 웃으며, 제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지내왔습니다. 힘이 들어 아픈 적도 많고 수고스럽기는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빠져나갈 길을 주십니다. ‘너는 이곳이 선교지야. 너같이 월급 받는 선교사가 어딴어?’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저의 모든 삶의 동기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심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지치고 쉬고 싶을 때도 기다리는 환자가 미안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료하러 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기운을 내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 삶을 드리기로 하는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덧 물 위를 걷다가 도로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언제 이곳을 빠져나가나, 언제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나,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스럽고 안쓰러워 보이던 환자들 이 돼지처럼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괴물처럼 보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편 돈이 지극히 우상이 된 이곳

미국에서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매달 결제해야 하는 bill을 더 신경 쓰게 되고, 직장에서 PRODUCE 하는 것과 받게 될 급여 액수를 신경 쓰게 되고 매일 매일의 고생과 염려의 무게들이 짓눌러 오게 됨을 느낍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면 놀랍고 부럽습니다. 위험과 죽음을 무릅쓴 그의 열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누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학창시절 우등생이 되는 데 필요한 습관들이 있었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쁘게 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저의 습관으로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매일 기도를 두 시간 반 이상 깨어서 하기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애정 어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글 방식준



## 남편의 1주년을 추모하며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왔나니 불타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 (욥 5:7)

6.25 때 지뢰를 밟아 두 눈을 실명하고 한쪽 귀마저 청력을 잃고, 팔과 다리는 부분적으로 무감각과 통증으로 살아가다, 어느 날 교통사고의 통보를 받고 달려갔다. “오늘 밤을 못 넘기니 가족들에게 알리고 준비하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지만, 며칠 후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 많은 상처와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무릎이 부서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열네 군데나 다쳤다. 육신의 통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수술과 깁스로 몇 달의 병원 생활 후, 몇 년은 구부러지지 않는 다리를 끈질긴 인내와 물리치료로 다시 회복되었다. 생명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니, 의사 왈 “맹장이 터져 죽을 직전까지 왔었다”고... 마치 무수히 밟혔어도, 짓눌렸어도, 메말랐어도, 끈질기게 자라고 있는 잡초의 생명같이 다시 살아났다.

평화로운 가운데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전 구매의 큰 기쁨도 맛보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형제자매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던 행복한 날들도 있었다. 아마도 남편의 삶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인 듯하다. 그러나 또다시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실려 갔다가 이번에는 의사 왈, “결핵성 암이라.” 한다. 그러나 수술을 몇 시간 앞에 놓고 의사들의 공론이 있었던 후, 오진이라면서 “수술 안 하고 약으로도 치료된다”고 했다. 그 후 또다시 직장암이라는 판단을 받자, 의사 왈, “도저히 항문을 보존할 수 없으니 변 주머니를 배에 착용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생명을 포기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남편에게 간곡하게 설득하는 의사와 가족들의 눈물 권유로 수술을 받고 10년을 넘게 불편을 안고 살면서 내면에 깊은 상처와 짓밟힌 자존감, 몇 겹의 육신 장애를 안고 얼마나 아파하며 울었던가...

그래도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당당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또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으로 몸부림쳐 구급차에 실려 가니 “심장마비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고 했고, 수술 후 회복이 되었다. 이십여 년 전부터 피부가 군데군데 검붉은색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몹시 가렵고 괴로워했는



데 “피부암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너무 가렵고 아프고 부풀어 오르고 터지고 굵고 너무 참혹했다. 약은 점점 강도 높게 사용하지만, 때때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모습이 눈에 자주 띄었다. 남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롬 8:18) 말씀을 좋아했는데 때로는 힘들어하는 나에게 그 말씀을 풀이하면서 위로해 주었고 그이는 자주 말했다. “사람이 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보화를 안고 사는 삶이라”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밋고 싫어서 되돌려 말해 주었다.”그런 마음을 갖고 참고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어 주시는 것 아니냐”고...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루는 병상에서 깊은 잠을 자고 깨어나더니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했단다. 그러니 “내 입에 절대 음식을 넣지 말라”고... 그런 후 17일 금식하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 후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이가 살아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속속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여 후회를 했다. 나의 길을 떠난 지 일 년이 되었다. 그토록 잘 참고 당당하게 잘 견디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고 이겨낸 남편을 ‘참 훌륭했다’고 ‘참으로 잘했었노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지 못했음을 용서를 구한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날을 보고 한탄하는 대신 나의 주변에 이처럼 아파하며 외로워하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 주셨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크고도 넓고도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하며 부활의 생명이 이어지는 그 날까지 주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 이 자리를 떠나고도 싶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49년 동안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남은 삶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글 임광순 사모

## ‘꼭’

초등학교 시절, 한국에서의 추억을 손꼽자면 단연 소풍, 운동회, 수학여행일 것이다. 그중 운동회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이른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운동화 끈을 질끈 묶어 매고 힘찬 발걸음을 학교로 옮긴 기억이 생생하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이민을 온 한인 2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국학교 교사 일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다. 수업 준비와 교재 만들기, 시시때때로 있는 행사와 교사 연수 등 웬만한 책임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일이다. 힘든 만큼 보람 또한 큰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 지면을 빌려 2015년 봄학기도 열과 성의를 다해 무사히 끝내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미래 미국 주류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날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를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추억과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도 줄 수 있는 운동회는 이제 거를 수 없는 한국학교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년 이 행사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부모님들의 수도 늘어가고 있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부모님과 함께 뛰고 즐기고 음식을 나누면서 소통할 기회가 없는 미국식 교육현장과는 달리 한국 문화와 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한국학교의 운동회야말로 더없는 최고의 교육 현장일 것이다. 바라기는 이 학교를 거쳐 나가는 모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후일을 추억할 때, 그들의 향수와 감수성을 자극하는 기폭제로 운동회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차세대를 위해 한국학교에서 봉사하는 아이들이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손민호 (임마누엘 한국학교 교장)



## 운동 대회

훅! 호루라기가 울린다.  
애들이 다 준비하고 뛴다.

교장 선생님이 청팀 승!  
애들이 다 땀을 닦고 다시 준비!

운동 대회 끝이 왔어요.  
누가 이겼을까?

두두두두두.

청팀이 이겼어요.  
야호!

글 조유빈 (중급 2반)



## 강아지 똥

저는 강아지 똥을 읽고 뭔가 느꼈어요.  
강아지 똥이 울보 같았어요. 누가 더럽다 그러면 화를 내요.  
그냥 안 들은 척하면 돼요. 울지 말고.  
그리고 누가 놀리면 다시 그 사람들 놀려요.  
그리고 어떡해 해가 비칠 때까지 울어요?  
똥은 못 울어요. 똥은 말도 못해요. 누가 놀리면 어때요?  
참고 무시하면 돼요. 똥이 더러운 거가 맞아요.  
'아, 나는 더럽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강아지 똥은 울보예요.

글 조연우 (중급 2반)





##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어릴 때 많은 친구가 그랬듯, 나도 친구를 따라 중학교 때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성당에 갔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처음 보았는데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것이 나에게 다가왔고 세례도 받았다. 세례를 받은 후 계속 성당에 나갔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어렵듯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아내를 만나 99년에 박사 과정으로 미국에 오면서부터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를 나가면서도 SUNDAY 신자로서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아왔다.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학교 후배와 함께 3명이

STARTUP을 시작했다. 내가 사업을 하면 무엇이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1년 동안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되는 것이 없었다. 사업이 하나씩 안 될 때 마다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났다. 부모님이 처음 주신 사업 자금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고 1년 반이 지났을 쯤, 그 돈을 다 쓰게 되어 부모님께 다시 손을 내밀었다. 아버님께서 당연히 사업 자금을 주실거라 믿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다. 부모님도 박사 학위까지 받은 아들이 미국에서 직장도 없고, 사업도 잘 안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속상하셨는지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내가 마지막 잡고 있던 끈이 끊어진 것이다. 자금이 떨어지자 직원들을 가슴 아프게 모두 내보내고, 아내와 후배와 함께 집에서 사업을 해 나갔다. 회사 비용과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막으면서 지냈다. 아내와 자식들은 있는데 버는 돈도 없고,

사업도 안 될 그때, 왜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자살을 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나는 내가 너무 잘 난 줄 알았고 뭐든 하면 잘 될 줄 알았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셨다.

이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아내를 따라 주일에만 겨우 출석하는 신자였던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목사가 미국 대공황기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한 사업가 이야기를 하셨다. 그는 총을 옆에 둔 채 밤새 가족에게 편지를 쓴 후 죽으려 하는 순간, 새벽에 집 앞 교회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고 주님은 항상 나를 지켜 주신다는 내용이였다. 그때 갑자기 '아,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항상 나를 지켜 주셨구나!' 하고 깨달은 후, 다시 사업에 성공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JCPENNEY라는 것이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 주시고 보살펴 주셨구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중에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부활절이 다가오는 주에 운전을 하고 있었다. 부활절은 그냥 매년 공휴일 중 하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정도였다. 그런데 그 부활절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모욕을 당하면 참을 수 없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침을 맞으면서도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려고 참으신 것이다. 아,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 부활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일이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일같이 느껴졌다. 작년에 나를 살리려고, 나의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돌아가신 일 같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차를 멈추고 너무나 크게 울었다.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참으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셨던 것이다. '왜요, 왜요, 왜!' 너무나 울었고 너무나 속상했다. 정말로 작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올해 1주년이 된 것같이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아, 얼마나 아

팠을까. 얼마나 많은 살점이 떨어졌을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을까 정말로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너무 많이 울어서 힘이 없을 정도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기하야, 너를 살리려고,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너에게 지금까지 네가 보지 못한 세상을 주려고..." 너무나 생생하게 들렸다. '아 그랬구나,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아 2000년 전 일이 사실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오면 내가 살 수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성령을 보내 주실 수 있었구나. 그랬었구나.' 그게 지금까지 머릿속으로만 알던 사실이었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제야 깨달아졌다. 또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구나.'

그 뒤로 나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전까지는 사소한 일로 아내와 싸우고, 사업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사람들을 미워하던 내가, 바뀐 것이다.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싸움이 없어졌다. 사업이 힘들지 않았다. 내가 죽으니 사업이 안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괴롭지 않았고 그 잘 먹던 술맛이 없어졌다. 내가 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맛이 없어서 술을 더는 안 먹게 되었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그냥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우리 가족과 사업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족이 행복하고, 사업이 점점 잘 되어가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그 은혜는 이 글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이고,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글 이기하



## 홀인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 119:103)

할렐루야, 저희 목장을 소개하려고 시작하니 이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에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면서 다른 말은 쓸데없는 군더더기 같게만 느껴집니다.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제 꿈이 아니고 강기련 부목자의 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장년부에 등록하기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3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둘 다 잦은 출장으로 두 사람 모두 3주간 연속으로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도 한방으로 그냥 해결되었을 텐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었던지, 이런 '사소한' 문제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았으나 봅니다. 궁여지책으로, 3주간 연속은 포기하고, 한 주씩 한 주씩 띄엄띄엄 교육을 받고서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 부목자가 되기 위해 배우기 좋은 목장을 찾는 일은, 새가족부 권사님과 두 분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위험량 목장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우는 아름다운 목장에서

의 2년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두 준비해 주신 초보 목자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목자님과 목원들의 숨어서 섬기는 모습들은 언제나 제 삶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달다고, 그 속에서 마냥 아기처럼 사랑을 받고 살 수만은 없나 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사랑만 가득 받다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듣고, 대행 목자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한 저는 대행 목자 임직이란 것이 매우 무거운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고도 그냥 이전 목장에 놀러앉아 있었는데, 준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한 가족을 보내 주셔서, 주일날 예배 사이에 잠시 뵙고, 그 주 금요일에 첫 목장 모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가족의 자매님이 세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고, 임마누엘 교회에 출석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세례를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께 여쭙어 보니, 그 주 목요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고, 오는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으며, 이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목장 모임을 하기도 전에, 그 자매님을 모시고 예수 영접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그날 따라 출장을 가셔서, 같이 영접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접 모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 목원이 나오게 되었나, 참 잘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냥 놀라기만 했습니다.

아이를 다들 원하지만, 아이가 없는 세 가족, 여섯 명이 목장이 된 지도 벌써 여덟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많은 분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아마도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만 받고, 목자가 되어서,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기처럼 시작한 목장이었습니다. 목장 진행안만



따라 하면 된다고, 따라 해야만 한다고 교육은 단단히 받았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목자라니... 소경이 양떼를 어떻게 인도한다는 것인지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게 해주시는, 한번 한번의 목장 모임이 제게는 기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직장 근처에서 김기홍 장로님 인도로 직장 선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배운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날 목장 모임에서 나온 질문의 답인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목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목장에서 목원으로 사랑받고 있을 때 배운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김규동 목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몰랐었는데, 첫 목장 모임에서,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게 하는 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출장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던 형제님도, 엄청난 업무로 매일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삶을 사는 중에도 금요일 저녁 목장 모임 만큼은 꼭 나오려고 노력하시다가, 이번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축하 선물로 홀인원을 주신 것은 이젠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알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척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2:25) 너무나 세심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은 보는 제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야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23:1) 목자는 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글 김규동



## 최 권사의 성지 순례 노트



부활 주일 다음 날인 지난 4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비행기로 LA 공항에 도착해서 LA에서 거의 열세 시간을 비행하여 터키의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공항에 내리니 날짜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어 꽤 쌀쌀했다. 이스탄불은 모든 시가 유네스코에 지정된 1500년 된 역사의 도시라 한다.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인류 역사상 최고 문화 강대국 중에 하나로 꼽히는 터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보스포루스 해협, 터키를 대표하는 사원으로 내부가 파란색과 녹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해서 블루 모스크, 오스만투르크 황제들이 살았던 톱카프 궁전, 로마 시대 마차 경주를 했던 히포드롬 광장,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성소피아 성당, 지금은 성당이라 불리지 않고 박물관이라 하지만 전시물은 하나도 없는 박물관...성당 건물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한다. 이스탄불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이곳저곳 구경하고 갑바도키아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해서 Kayseri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Kayseri에서 Kapadokya(갑바도키아)까지는 버스로 또 한 시간을 달렸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

갑바도키아...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했던 땅에 바위를 파서 집과 교회로 사용했던 괴레메(GOREME) 야외 박물관과 기독교 박해를 피해 지하에 건설된 지하 도시 DERINKUYU UNDERGROUND CITY... 박해를 피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에 지하 8층 정도 되는 깊이에 도시를 만들어 신앙의 선배들은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예배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았다. 그때 내가 이곳에 있었다면 과연 나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동굴과 지하 도시에서 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 꼬불꼬불 안내원을 따라 다니면서 내내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먹먹했다.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었던지... 그 지하에서 꽤 오랜 시간 있었지만, 공기가 탁하질 않았다. KONYA와 ANTALYA, 파묵칼레를 거쳐 이틀 후에 라오디게아에 왔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천 년 전 성도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한 초대 교회 LAODIKEIA... 그러나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라고 일곱 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을 들은 교회, 물질이나 문화적으론 자랑할 것이 많았으나 영적 무지와 나약함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3:19-20) 라고 말씀 들은 교회다. 이천 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책망받은 말씀과 갑바도키아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라오디게아 돌짜 길을 걸어 보았다.

4월 12일 주일, 터키의 마지막 날 에베소(EPHESUS)를 갔다. 터키와 그리스는 이날이 부활절이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2년 3개월간 두란노 서원에 머물며 열정적으로 전도와 강론을 했던 에베소 교회,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그 당시 아시아 최고의 도시

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에베소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셀수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신전, 원형극장, 아르테미스 신전, 많은 유적이 이제까지 겨우 12% 정도 발굴이 되었다고 한다. 로마 시대의 거대한 도시가 상상이 된다. 에베소는 이천 년 전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한다. 몇 년 뒤가 될지 알 수 없지만 100% 다 발굴이 되었을 때 다시와 볼 수 있을까? 터키는 한자로 돌궐이라 표기하고 우리와 같은 우랄 알타이어 족이라는 설이 있다. 또 돌궐족이 투르크족이다. 터키는 머니면 아시아 대륙에서 온 투르크족이다. 그래서 아직도 단어가 우리와 같은 것이 많다. 그 증거로 사도 요한의 교회에 갔을 때 사도 요한의 무덤에 있는 비석에 ‘뭇자리’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영어로 “ST JEAN IN MEZARI THE TOMB OF ST JOHN” “MEZARI” 영어로 발음 나는 대로 적었는데 분명 뭇자리이다. 물은 ‘수’라고 하고 어린아이를 업는 습관도 서양에선 찾아보기 힘든데 터키에선 아이를 업어 준다. 아무튼, 터키는 좀 남다르게 친근감이 갔다. 에베소에는 한국 식당도 하나 있어서 오랜만에 맛있는 비빔밥을 먹었다.

예쁘고 조용한 도시로 바뀐 에베소를 떠나 6시간을 달려 에게 해안의 휴양도시 차낙칼레(CANAKKALE)에서 하룻밤 자고 1차 세계 대전 격전지였던 다르다스 해협을 휘리로 이동해 터키와 그리스의 국경 입살라로 갔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한 탓에 새벽 바람이 꽤 차다. 휘리를 타기 전 거대한 트로이 동상도 보고 국경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국경 쪽은 이제껏 보던 도시들과 다르게 조금은 낯설게 보였다. 언젠가 사진으로 본 북한의 어떤 도시 마냥 쓸령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다. 입살라에서 터키 출국 검사와 그리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가이드와 함께 그리스의 첫 유적지인 빌립보로 향했다.

글 최혜량 권사





주님의  
꿈나무들...



## 믿음 안에 하나 - 동시통역팀

저는 동시통역 팀장으로 섬기는 황선암입니다. 제가 동시통역 팀에 합류한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전부터 몇몇 분이 섬기시고 나가셨구요.

우리 교회 동시통역 팀의 주된 사역은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을 영어로 동시통역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요청하는 특별 예배나 행사를 위하여 동시통역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 세 분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팀을 꾸려가고, 각 팀원은 매 주일 순서대로 동시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 듣는 것보다 더욱 간절하고 더욱 강하고, 때때로 그분들의 감정과 열정까지도 느낄 수 있어 마이크를 통하여 전해지는 우리 팀의 통역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큰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전에 주보 요약물 받아 미리 성경을 읽고 요약 말씀을 공부해야 하므로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부흥회나 특별 집회가 있을 때 말씀이 너무 빠르신 분이 설교하실 땐 애를 먹기도 하는데, 미리 인터넷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그분들의 동영상도 보기도 합니다. 메시지가 무엇인지 미리 알려고 하다 보면 섬김 전에 우리 팀원들이 받는 은혜가 더욱 큼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외국 분들께서 고맙다 말씀해 주실 때 감사와 은혜가 몇 배가 됩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사라 김 사모님과 김요섭 집사님, 두 분 팀원들께 감사하고, 매주 동시통역을 들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며 이로 인해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뛰어넘어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루살렘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언어를 뛰어넘어 인종과 언어 등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팀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통역팀을 위하여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팀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님을 섬길 사역을 찾고 계신다면 동시통역팀에 합류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글 황선암







## 너희는 먼저... 오케스트라부

“선생님! 저는 옆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제가 같이 연주해야 하나요?”

얼마 전 저희 오케스트라 자선 공연 때 듀엣곡을 준비하던 한 오케스트라 단원의 불만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함께 화음을 내고 밸런스를 맞춰야 하며 무엇보다 서로의 호흡을 파악하고 연주해야 하는데, 스케일과 연주경험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이 친구는 자신의 소리가 부족하게 들릴 것을 염려한 당연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곡을 같이 연주해 줘야 하는 거야...” 임마누엘 오케스트라의 차별화(?) 된 너무도 세상적이지 않은 운영방침을 이제 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임마누엘 오케스트라는 비기너부터 외부 시니어 오케스트라에 속해있는 이른바 실력과 친구들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많은 레벨이 함께 연주하고 소리를 맞춰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력의 차이를 서로 도우며 한 소리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기너 동생들을 고등학교 형들과 누나들이 살뜰히 보살핍니다. 서로 예수님이라는 공동체에 묶여 주일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소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케스트라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워나가는 것, 서로 경쟁이 아닌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돕고 보살피는 것... 이제 곧 저에게 질문했던 이 친구도 임마누엘 오케스트라의 이런 공동체를 통해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케스트라의 리더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임마누엘 오케스트라는 일 년에 2~3번 양로원을 찾아 공연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다며 왜 이렇게 조금만 연주하니? 라고 아쉬워하십니다. 또한, 임마누엘 오케스트라는 일 년에 2번 정기공연을 엽니다. 봄 정기공연은 자선공연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또는 선교단체를 돕기 위해 연주회를 개최하고, 가을 정기 공연은 전도의 목적과 비전을 갖고 인근 지역 공원에서 외부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WHERE YOU GO, I’LL GO WHERE YOU STAY, I’LL STAY WHEN YOU MOVE, I’LL MOVE I WILL FOLLOW...”

임마누엘 오케스트라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저희 오케스트라부를 기도와 관심과 격려로 응원해 주세요.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글 윤신자



## 행복한 드러머, 방보경 자매님

‘아마존 정글에서는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하던 바람이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가 휘몰아칠 수 있다’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의 나비 효과 이론은 아주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인생의 금가루가 휘날리는 대학 시절부터 하나님께 순종의 옥합을 깨뜨림으로 주와 함께ダイナミック한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행복한 드러머, 방보경 자매님을 만나 보았다.

### 대학로 락 밴드 드러머에서 찬양 연주자로

안녕하세요? 방보경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지만, 대학 입학 후, 메탈과 락 음악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때 제 모습은 입시 이후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감속 드럼을 처음 접했고, 메탈과 락 음악에 빠지게 되면서 찢어진 청바지에 노랑머리, 밤새 드럼 연습을 하고 해를 보면서 집에 들어오는 양다리 생활을 2년 정도 했어요. 주말 아침이면 부모님과 옷 문제로 싸우곤 했는데 늘 걱정스럽게 보시던 아버님이 “교회 드럼 치는 청년이 군대에 가서 자리가 비었는데, 드럼을 사 줄 테니 한번 해 보겠느냐”고 어느 날 제안을 하셨어요. 그 당시 대학로에서나 공연할 때, 음향 엔지니어가 늘 제 드럼 소리가 작다고 계속 “크게 치라”고 했어요. 아무리 힘껏 쳐도 남자 드러머들 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 시기였기에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찬양팀 수련회와 매주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이 전엔 창피하지 않던 외모에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졌어요. 졸업하고 2년 정도 후,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을 때, 드럼은 당연히 못 할 거로 생각했는데 제가 다닌 캐나다의 작은 교회

에 드러머 자리가 비어 있었고, 미국에 처음 와서 새크라멘토 어느 한인 교회에 다닐 때도 드러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작년 7월, 임마누엘에 온 첫 주, 뮤직 아카데미 드럼 수강 신청을 했고, 11월부터 수요일 기도 예배 찬양팀 드러머로, 지금은 1부 예배 찬양팀에서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는 곳마다 드러머 자리를 비워 두고 계셨고 유학 생활이 전환점이 되어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기도와 권유가 계기였고, 세상 음악에 대한 괴리감과 한계를 느끼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느낄 때, 드럼에 대한 저의 갈망과 소망을 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으로 연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드럼을 칠 수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어요.

### 예배를 위한 영적 삼투압

드럼을 그만둔 계기가 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소리가 약한 것이었는데, 찬양 연주 때는 드럼이 뒤에서 포근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소리가 작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었어요. 세상 음악을 할 때 부끄러워했던 약점조차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다른 악기들은 스스로 멜로디를 내지만, 드럼은 혼자서는 마치 팽과리 같은 소리를 내니까 서로 협력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라서 혼자 연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연습은 제 마음 같기도 해요. 일주일 3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기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드럼 자리에 앉게 되는데, 나흘 동안 어떻게 살았고 제 마음이 얼마만큼 예배에 있느냐가 관건이고, 예배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가정과 직장 일로 드럼 앞에서 실제 연습 시간을 따로 낼 수 없지만, 나머지 4일은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미리 찬양을 듣고 분석하는 것이 연습인데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숙제이기도 해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드럼 자리에 앉아 예배(찬양)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가장 많이 점점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드럼을 통해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찬양으로 받은 에너지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커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열등감과 결핍이 오히려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말하자면 ‘결핍의 에너지’라 할 수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과 온 맘 다해 대화하며 찬양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저의 손과 발로 드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 가족, 보람, 그리고 회복된 JOY

저는 리서치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외조하는 남편, 고석진 형제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5학년인 딸과 네 살배기 아들에게 늘 많이 미안하죠. 부족한 아내와 엄마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안아주고 감싸줘서 지금까지 찬양 연주자로 섬길 수 있었으니까요. 몇 가지 생각나는 보람이라면, 캐나다 교회에서 기념 앨범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둘째가 태어나기 2주 전까지 드럼으로 섬기



고 앨범도 만들 수 있었어요. 언젠가 주일 예배 후, 캐나다 할머니 한 분이 “마음이 매우 힘들었는데 예배 가운데 드럼 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을 때나, 드럼을 배운 학생이 자존감과 사명감이 회복되어 찬양 드러머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뿐만 아니라 저의 자존감과 사명감까지 회복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까? 하루가 48시간 일 수 없을까?’하며 심 없이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꿔 주시면서 지체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JOY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고 누리려는 것도 기쁨이라는 의미로 JOY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미국에 왔는데 어느 순간 또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작년 7월, 이곳 베이징역에 와서도 계속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 목사님께서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기뻐하세요, 즐기면서 하세요.” 하시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미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죠. 요즘도 바쁘게 살고 있고 자격이 안 되지만, 편집장님의 “이번엔 기쁨호예요. 기쁨이 두 배가 될 것 같아요.”라는 말에 마음이 사로잡혔고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기쁘세요?’ 하고 삶 속에서 늘 질문을 했는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 ‘내 형상대로, 너의 가진 모습, 있는 모습, 그 자체로 기쁘다’라고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취재 편집부 김정신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 T. 408.263.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백영진
기획	김정신
진행	김정신/윤영숙/한연선
사진	김범진/김홍배
교정 및 교열	정현주/최정아
번역	정은하
편집디자인	김은경/김유경/장은영